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1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3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 하소서
 4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 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후렴 주여 주여 내가비오니
 죄인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3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후렴 나 구주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담당

| | | | | | |
|----------|----------|----------|----------|----------|----------|
| 11/15(화) | 11/16(수) | 11/17(목) | 11/18(금) | 11/19(토) | 11/21(월) |
| 전부열 | 이태호 | 김춘식 | 박동희 | 박승필 | 김민수 1 |

2022년 11월 17일(목)

인도 : 백석준 목사

이른아침예배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79장 다 같 이
 기 도 김춘식 집사
 성 경 봉 독 욥기19:21-29 인 도 자
 찬 양 주 없이 살수 없네 새벽찬양대
 설 교 『심판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백석준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21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욥기19:21-29>

- 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 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 24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 26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닦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 28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 29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11월 17일(목)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와 예배로 새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히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치 속에서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35년 전 새문안 교회를 세우시고 여섯 번째 예배당을 허락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헌당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속히 헌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붙잡아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 긴장하지 않고 실력대로 잘 치러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이후에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속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고통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속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